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859-2400 ~ 2410 FAX: 063-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0월 4일 **금요일** (음 9월 6일)

제238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바람, 소리' ...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

'바람, 소리'를 주제로 한 제18회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식이 실시된 2일 한국소리문화전당 모악당에서 이베리 콰이어(왼쪽 상단)와 전북영상작법보존회 관계자들이 합을 맞춰 아름다운 선율을 뽐내고 있다. <권기사 4면>

'사람찾는 농촌' 대안

전북 농촌관광에 홀딱~

도, 하이서울브랜드 기업협회 등과 업무협약 체결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직접 연계 소득 증대 집중

전북도는 지난 2일 전북도청에서 하이서울브랜드 기업협회, 전북 농어촌지원센터와 '전라북도 농촌관광 활성화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농촌관광 활성화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에는 최용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하이서울브랜드 기업협회 조현중 회장 직무대행, 송병철 전북 농어촌지원센터장이 참석했으며, 전북도 핵심정책인 삼라농정의 '사람 찾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협력 및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행한다고 합의했다.

도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기관 간의 협력사업 발굴과 지원에 주력하고, 하이서울브랜드 기업협회는 전북 농촌관광 정보 공유 및 이용과 농촌관광 및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전북농어촌지원센터는 도내 우수 농촌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맞춤형 농촌관광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하이서울브랜드 기업협회에 상시 제공한다.

'하이서울브랜드 기업협회'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한 서울시 소재 우수 중소기업이 소속된 단체이다.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이 900개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2017년말 기준 하이서울브랜드 기업 전체 매출액은 5조6000억원이며, 기업 평균 매출은 125억원이다.

도는 서울 중견기업에 소속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북형 농촌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시 찾는 전북 농촌, 생각하는 농촌관광을 만들 계획이며, 또한, 이번 협약식을 기점으로 하이서울브랜드 기업협회에 참여하는 기업과 전북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직접 연계해 농촌 휴양과 전북 농산물의 직거래 유도도 농촌마을의 소득을 올리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최용범 도 행정부지사는 "이제 전북의 농촌관광은 사람찾는 농촌을 실현하는 대안이 되었으며, 그 결과 작년 농촌체험 관광객 수는 94만 7천명, 매출액은 95억원에 달해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 다양한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는 지난 2일 전북도청에서 하이서울브랜드 기업협회, 전북 농어촌지원센터와 '전라북도 농촌관광 활성화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매일 INDEX

4면 - 비벼봐 신나게! 즐겨봐 맛나게! ... 전주비빔축제 미리보기

아태마스터스대회 전북 유치 확정

생활스포츠의 국제대회인 '제2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오는 2022년 전라북도에서 개최되기로 확정됐다.



스위스 로잔 올림픽 박물관에서 PT 발표·적격심사 통과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부터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까지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목표 완성

송 지사는 또 "대회유치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그리고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준 체육관련 전문가들에게도 감사 드린다"며 유치확정의 공을 모두에게 돌리고 "앞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대한민국과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피력했다.

전북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한국관광공사 대표 관계자가 함께 제출한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계획서의 신뢰여부를 심사하는 프레젠테이션 발표에서 ▲국제대회 개최경험과 충분한 시설, ▲대한민국 체류여행 1번지로서의 전북의 매력, ▲2022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에 대한 전라북도민의 지지, ▲대한민국 정부 보증과 전북도의 개최 의지 등 4가지 기준으로 2022년 아태마스터스대회는 꼭 전북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당위

성을 회원국들에게 전달했고 적격심사에서 만장일치로 '2022년 제2회 아태마스터스대회 전북유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전북도의 이번 2022년 아태마스터스 유치는 정확한 목표설정과 뛰어난 유치전략이 성공의 열쇠였다는 평가다.

첫째,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타깃으로 '7년연속 대규모 행사'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뚜렷한 목표 설정, 둘째, 까다로운 국내절차 거쳐 문화부와 대한체육회 등 정부의 보장 획득, 셋째, 대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주관기관인 전라북도의 의지를 앞세워 승인기관인 IMGAs(국제스포츠공회)의 결과물이라고 분석된다.

전북도가 유치한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는 부가가치 창출 등의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조사 보고됐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총 비용현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